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고창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5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지자체에 대한 '제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수여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정부는 물가인정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3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실적, 특수 시책 추진사항 등을 반영해 평가했다.

고창군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분야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등의 지방공공요금의 동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0% 감면을 추진해 요금을 지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군민행복 활력고창  
대도약 희망트리 점등식

고창군이 16일 오후 고창군청 광장에서 2023년 군민행복 활력고창 대도약을 위한 희망트리 점등식을 열었다.

이날 점등식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쉽없이 달려왔던 2022년을 되돌아보고 올해보다 더 희망찬 2023년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임정호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전라북도의회 김만기 부의장, 김성수 도의원 등과 군민들이 참석했다.

조명 시설은 고창군청 광장과 읍내리 4개 회전교차로에 설치됐고 내년 1월 말까지 매일 저녁 화려하게 불이 켜진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 펼쳐질 고창군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2023년을 꿈꾸게 하는 희망이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세계인의 보물도시 고창'

군 · 전북도, 말레이시아 여행사 · 홍보관계자 150여명... 관광설 명회

2023 세계유산도시 방문의해 를 추진 중인 고창군이 본격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섰다.

지난 16일 고창군은 전북도 및 13개 시 · 군과 함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여행사 · 학교 · 유관기관 등 150여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 전북관광전'을 열었다.

고창군 홍보단과 전북도, 시군담당자들은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지사장 양경수)를 방문해 말레이시아 방한 관광시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창군의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했다.

또 현지여행사와 1:1 상담, 관광설명회, 말레이시아 우수 지원단(서포터



즈) 지정서 수여, 여행사 방문 및 상품 홍보, 유관기관 관계자와 업무논의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한인 체육회 사무총장이 내년 5월 아 · 태마스터즈대회 참석차 고창 와보고 싶다고 언급하고, 고창군 홍보영상도 요청하기도 했다.

고창군은 청정자연을 깨닫고 있으며 고향적 문화를 담고 있는 데다 수박과 복분자, 멜론, 풍천장어, 바지락 등 미

식의 도시다 또 2곳의 조선시대 읍성을 비롯해, 2곳의 해수욕장, 3곳의 골프장, 게르마늄 온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MTB파크, 경관농업1번지 학원농원 청보리밭, 대한민국 6차산업화성지인 상하농원 등 곳곳의 여행공간도 많다.

고창군 홍보단은 16일에는 말레이시아 현지여행사를 직접 방문해 '봄꽃 여행상품' 등 맞춤형 여행상품을 직접 홍보하는 등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K-콘텐츠가 가득한 관광도시로 고창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내년도 노인복지 향상 적극 추진

축소된 정부 노인복지예산 · 일자리사업... 경로당 양곡지원 현행 유지

부안군은 내년도에 정부 노인복지예산 삭감으로 축소 위기에 놓인 노인일자리사업과 경로당 양곡지원에 자체 예산 4억374만원을 편성해 현행 사업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안군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2019년도 2,001명에서 2022년도 3,05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2023년도 복지예산 축소를 2019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또한 등록리와 경로당 양곡 지원 감소로 어르신들의 박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권익현 군수는 최근 정부의 2023년도 국비지원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량과 경로당 양곡지원 축소 발표에 따라 관계 부서에 2023년도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2023년 복지예산 축소를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량 138명이 줄어들어, 부안군은 국비 미지원분 2억1,114만원을 자체예산으로 투입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올해 3,050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또한 등록 경로당 477개소에 대한 정부의 양곡지원이 1포로 축소됨에 따라 자체예산 1억9,260만원을 투입해 양곡 7포를 추

가 지원(총 8포)할 예정이다.

한편 소확행 공약사업 '노인일자리 영농사업단' 읍면 13개소 확대 운영에 있어 2022년보다 33명 확대해 총 167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마련하여 기존 7개 읍면에서 점진적으로 13개 읍면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소득증대와 활기찬 노후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올해 규모를 유지하고 경로당 양곡 추가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악취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적극 나서

정읍시가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14일 '산업단지 악취 배출사업장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산업단지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과 인근 사업장에서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효율적인 악취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과 전북도 생활환경과장을 비롯한 11개 사업장 대표자, 환경 · 기업 관계 공무원과 악취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악취방지대책 수립 시 고려할 사항과 사업장 유형별 악취 방지시설 선정 등의 내용으로 악취전문가 교육이 진행됐다.

또 사업장별 악취 저감 사례를 공유하고, 악취전문가에게 개선 방법을 자문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악취 대응 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내년에 악취 배출 사업장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악취 전담 인력을 배치 운영해 악취를 측정하는 등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악취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생생마을 영상제 & 페스티벌

부안군 농어촌지원센터, 23일 백산면 녹두꽃 문화센터서 개최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하남선)에서는 오는 23일에 백산면 녹두꽃 문화복지센터(백산면 백산로 340)에서 부안 생생마을 영상제 &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 해 동안 부안군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공유하고 농촌 활력을 확산하고자 만들어진 영상제이다.

행사 일정은 10시 30분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식, 본행사, 야외영화 상영으로 운영된다.

특히, 한 해 동안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마을공동체 영상작품의 품평회 및 시상식과 함께 실내에서는 '계춘할망' 영화와 야외에서는 '코다' 영화 상영, 마을공동체 출품작을 감상할 수 있

다.

야외무대에서는 공동체 동아리 축하공연(하서어울밴드, 백산가온누리밴드, 백산면 색소폰 동아리, 부안청년밴드), 마을공동체 작품 품평회(윌트, 목공예, 술연구회 시음 등), 주민 참여 체험부스(도자기 체험) 및 영상 포토박스 운영, 이용 봉사, 지역특산품 홍보 · 판매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선 센터장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마을영상제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일상 속에서 영상미디어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녹두한우영농조합법인(대표 오병오)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2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 대회에서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 정읍시, 국산콩 우수 선발 대회 '우수상' 수상

정읍시 녹두한우영농조합법인(대표 오병오)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2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 대회'에서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콩 재배 농가의 영농 의욕을 높이고, 우수 생산단지 발굴을 통해 고품질 다수확 재배 기술을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매년 우수 생산단지를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로 선정된 녹두한우영농조합법인은 농촌진흥청장상과 함께 시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

녹두한우영농조합법인은 참여 농가 재배 기술 교육과 표준재배법 매뉴얼 확립, 영농일지 작성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또, 보급종 파종과 병해충방제 등 대부분을 기계화로 작업하고,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돌려짓기하는 등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특히, 한우 사육 과정에서 나오는 퇴비를 밑거름으로 토양에 환원해 지력을 높이고, 정부 지원 장비를 활용해 공동 농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였다.

전정기 소장은 "농업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으며 정읍 논공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논공 생산 기반을 지속 확대해 벼 재배 면적을 높이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